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해외 패션업계 '지속가능한 패션' 대응 동향

북한포커스

북한의 편의서비스업 현황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해외 패션업계 '지속가능한 패션' 대응 동향 1

북한포커스

북한의 편의서비스업 현황 4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6



해외 패션업계 ‘지속가능한 패션’ 대응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박수진 (soojin.park@kdb.co.kr)

- ◆ ‘지속가능한 패션’과 관련 국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정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며 구체적 목표와 전략 제시
- ◆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및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 등과 맞물려 ‘지속가능한 패션’이 패션산업 지형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국내 업계도 적극 대응 필요

□ 패션산업에서 ‘지속가능한 패션(Sustainable Fashion)’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국제기구 및 정부 차원의 정책 확대 및 패션 브랜드의 참여가 활성화




- (정의)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환경 및 자원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션 제품의 생산·사용·폐기 과정을 의미하며, 패스트 패션(Fast fashion)의 반대 개념인 슬로우 패션(Slow fashion)의 의미로도 사용
 - ‘지속가능한 패션’과 관련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나 환경문제, 사회문제, 기업 윤리적인 측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
 - * (예시) 친환경 섬유 소재 사용 /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/ 공정무역 확대 / 인권 및 동물 보호 기준 준수
- 국제 사회와 주요국의 강력한 정책 시행 등으로 섬유패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패션업계의 참여도 활발
 - UN이 채택한 ‘지속가능발전목표(SDGs,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’는 다수의 글로벌 패션기업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방향과 연결
 - *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‘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(Fashion Industry Charter for Climate Action)’ 제정, ‘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제로(zero)로 하는 계획 발표, 100여개 브랜드가 서명’(18.12월)
 - * G7정상회의 기간 중 온난화 억제,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위한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협약인 ‘패션 협약(Fashion Pact)’ 결성, 60여개 기업이 이행 선언(‘19.8월)

글로벌 패션의류 소비 및 환경오염 배출 전망

구분	의류소비량 (백만톤)	물소비량 (십억m ³)	CO ₂ 배출량 (백만톤)	폐기물 배출량 (백만톤)
2015	62	79	1,715	92
2030	102	118	2,791	148
연평균 증가율	3.4	2.7	3.3	3.2

자료 : The Boston Consulting Group(2017), Pulse of fashion industry

국제기구 및 국가별 정책 현황

	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의류신발 등 재고품 폐기 금지법 제정(‘20.1월)
	독일은 지속가능성 및 환경 표준 등을 준수한 섬유제품에 부여하는 세계 최초 정부 인증 마크 ‘The Green Button’ 시행(‘19.9월)
	‘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UN연합(UN Alliance for Sustainable Fashion)’ 출범(‘19.3월), 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별 정책 추진을 지원

자료 : 언론자료 등 참고하여 재정리

□ 글로벌 패션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패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며 변화를 주도

- 글로벌 명품 브랜드 뿐 아니라 패스트패션을 추구하여 다량의 의류 폐기물을 양산해 온 SPA브랜드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투자 확대 지속
 - 기존 의류 생산 방식(대량생산, 패스트 패션 등)이 초래하는 문제들이 향후 패션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자발적 참여의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
 - * PRADA 그룹(이탈리아 명품 브랜드)은 '20.2월부터 신제품에 동물 모피 사용을 중단, '21년까지 모든 나일론 제품을 에코닐(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든 재생나일론)로 전환한다는 계획 발표('19.6월)
 - * Inditex(ZARA 등의 모회사)는 '25년까지 모든 제품 생산에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 약속('19.7월)
 - 기업활동 전반의 지속가능성은 기업 평가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, 기업의 자발적 목표 제시와 이행의 결과는 지속가능보고서*로 평가
 - * 기업이 사회적 책임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
 - * 지속가능성의 이행결과는 S&P의 환경사회적 책임지수 (S&P Environmental & Socially Responsible Index)나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(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) 등 주요한 기업 평가지표에 반영
- 지속가능성 목표는 패션제품의 라이프 사이클(생산-운송-판매-수리-재활용)별로 다양하나, 생산 단계와 관련된 목표는 ① 친환경 제조 공법 개발 (에너지 절감, 유해물질 배출 감소), ② 친환경·생분해성 섬유 신소재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의류 개발, ③ 폐기물 감소를 위한 재활용 섬유 사용 및 업사이클링* 등으로 분류 가능
 - * 업사이클링(Upcycling)은 업그레이드(Upgrade)와 재활용을 뜻하는(Recycle)을 합친 단어로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

글로벌 패션기업 '지속가능한 패션' 관련 계획 및 사례

구분	환경 문제	대안	사 례
생 산	자원 소비 정련·표백 등 습식 공정으로 인해 과도한 물 소비 발생	자원·에너지 소비 절감	 물 사용량 최대 99% 절감하는 진 워싱 공법 개발('18.11월)
	화학 섬유 사용 생분해성이 낮은 의류 폐기물 매립 등으로 토양 오염 및 유해가스 발생 (나일론 분해기간 : 30-40년)	유해 소재 사용 중단	 '24년까지 버진 플라스틱* 사용 중단 등의 계획 발표 ('19.4월) *석유에서 추출하여 만든 플라스틱
	염색 · 가공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폐수 발생 및 가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	친환경 소재로 전환	 - '30년까지 전 제품에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을 선언('19.4월) - 중고의류 판매, 의류 렌탈 사업

자료 : 박훈(2018), 한국 패션의류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및 각사 홈페이지 등 참조하여 당행 재구성

□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및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 등과 맞물려 '지속가능한 패션'이 패션산업 지형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국내 업계도 적극 대응 필요

- 지속가능한 패션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·공급자 및 사회적 효익 증대에 기여하며 패션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국내 업계도 패션 생태계 변화에 대응 모색 필요
 - (환경) 환경오염, 기후변화 등 기존 패션제품 생산 방식이 초래한 환경문제의 대안
 - (소비자) 윤리적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 충족
 - * 패션 브랜드의 기업 윤리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'Good On You' 등 유사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
 - (기업) 장기적 존속을 위한 생존 전략이자, 침체된 패션시장에 신규 수요 창출의 기회
 - * 파타고니아(Patagonia), 로티스(Rothy's) 등 해외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성공 사례 다수 존재

- 패션기업의 지속가능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은 기존 원료 조달 방식 및 공급망의 변화로 이어지는 한편 섬유 신소재 개발 촉진 예상
 - 자체적인 친환경 신소재 개발 위한 R&D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급망 수직통합화 가능성
 - 소재 개발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업·제휴, 직간접투자 증가 전망
 - * 사넬은 지속가능한 실크를 연구·개발하는 스타트업(Evolved By Nature)에 투자 사실 공개('19.6월)
 - * H&M은 홍콩섬유의류연구소(HKRITA)와 4년간('16-'20년) 파트너십을 체결, 섬유 혼방을 재활용하기 위한 열수 방식의 기술 혁신 제시, 재활용 공장을 시범 운영

- 패션제품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·인증하는 각종 인증제도의 중요성 및 수요 증가 예상
 - 리사이클(Recycle) 인증, 동물 복지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의류연합(SAC)의 HIGG Index를 비롯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인증 시스템도 다수 개발

업사이클링 사례	섬유제품 인증 예시
	
<p>스위스의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라이탁(FREITAG)은 폐차된 자동차 안전벨트, 방수천 등으로 가방을 생산(연 매출 700억원 이상 추정)</p>	<p>* RDS(Responsible Down Standards) : 동물복지를 준수한 다운제품에 대한 인증</p>
<p>자료 : 프라이탁(FREITAG) 홈페이지</p>	<p>자료 : 노스페이스(The North Face) 홈페이지</p>

북한의 편의서비스업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최재현 (jaeheun@kdb.co.kr)

- ◆ 최근 북한경제의 시장화에 따라 개인들이 생활편의사업을 운영하고, 배달·사교육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도 등장
- ◆ 북한 당국은 편의서비스 인력양성 및 기관·기업소의 추가사업 운영을 통해 재정수입 확대 추진
 - 편의봉사법 등 관련법 개정 및 거래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 제도 정비

□ 북한의 위생, 수선 등 편의서비스업*은 빠르게 성장 중

* 위생(미용, 목욕), 수선(옷, 신발), 가공(사진, 염색), 이용(여관, 운송창고) 편의서비스업 등

- 최근 시장화 확대로 생활편의, 교통·운수 등 서비스업 규모 증가
 - '19년 GDP 기준 : 서비스업 34.1%* ('16년 대비 3.0%p 증가)
 - * '20.10.21자,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'북한 GDP관련 통계'
- 北 당국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서비스 시설을 개인 앞 대여
 - 개인사업자들이 미용실, 숙박시설, 사진관 등 생활편의 업종 운영을 위해 국유건물을 임대하고, 매달 사용료 납부
 - * RFA('19.5.14자), "북한 개인사업자들 국가건물 임대해 장사"

□ 최근 배달, 사교육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도 등장

- 석유배달, 전자제품 수리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 당국에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운영권을 취득
 - * '20.4.8자, OECD보고서 '북한경제의 최근 변화' 인용
- 전문교원과 명문대 학생들에게 외국어, 예체능 등 개인교습을 받는 사교육 확산
 - 평양시의 사교육비는 1인당 최대 월 300달러 수준, 지방은 한 과목당 흰쌀 10kg 수준
 - * RFA('19.11.27), "북한 내 사교육 확산으로 서민들 박탈감 더해"

□ 北 당국, 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통해 편의서비스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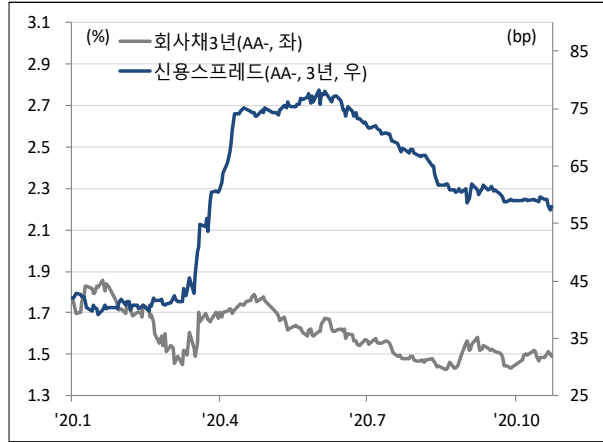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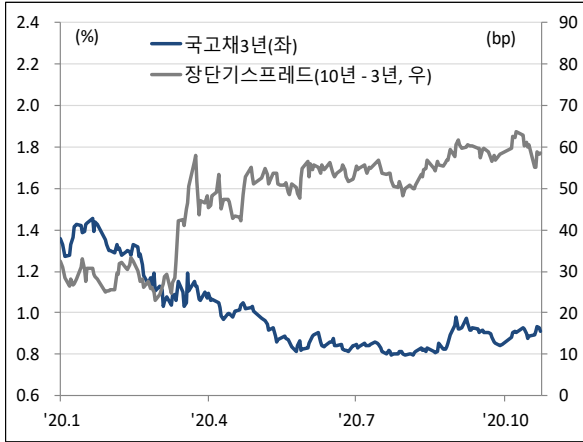
- 평양상업봉사대학,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에서 서비스 인력양성에 집중
 - 호텔 및 고급음식점 종사자, 이·미용사, 의류 디자이너 등 교육 강화
 - * 우리민족끼리TV('20.5.20), "평양상업봉사대학 교육현장 영상공개"
- 북한 기관·기업소도 수익성이 높은 편의서비스업으로 사업영역 확대
 - 고려항공은 공항택시, 주유소, 세차장, 음료사업 등 추가사업 운영
 - * 연합뉴스('17.6.7자), "北 고려항공, 문어발식 사업확장"

□ 편의서비스업 증가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정비

- 상품거래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수증 발행 의무화
 -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으면 자금횡령 의도로 보고, 조사와 처벌 등 불이익
 - * RFA('19.12.10), "북, 영수증 미발행업체에 강력한 처벌 경고"
 - 식당, 택시 및 간이판매점 등에서 점차 영수증 발행제도 정착
- '20.1월 편의봉사법 개정으로 편의서비스업에 대한 당국의 지도·통제 강화
 - * 北 민주조선('20.1.27자), "상업법과 편의봉사법 수정·보충, 국가상업체계를 강화"
 - 당국이 서비스가격 통제 및 세금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
 - * 데일리NK('20.2.6자), "시장가격 및 경제활동 허가 국가가 직접 통제... 北, 법체계 보완"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금 리 국고채3년 0.91% (2.2bp ↑), 신용스프레드 57.9bp (1.8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132.9원 (14.5원 ↓), 엔/달러 104.71엔 (0.71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360.81pt (0.82% ↑), 코스닥지수 807.98pt (3.10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00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